

2016 하반기호 | VOL.93

너와 내가 하나의 원으로 만나 조화로운
두바퀴가 될 때 번길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두바퀴



창원경륜공단



경고 :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



검양옷나무

제주, 전남 등 주로 남쪽지방 낮은 지대에서 자란다. 원추 꽃차례는 잎겨드랑이에서 나오고, 꽃은 암수가 섞여 있으며 5월에 피는 황록색이다. 꽃받침, 꽃잎, 수술 모두 5개씩이며, 익은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다. 닭과 같은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옷나무와 같은 부작용은 없다.



● 표지이야기

가을 단풍이 빨갛게 물든 창원 성산아트홀 앞 가로수길에서 누비자를 탄 남녀가 도란도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가고 있다.

- 사진 김규태 / 감사홍보담당관실

두바퀴

2016 하반기 | VOL. 93

CONTENTS

- 04 **경륜칼럼** 창립 16주년 기념사
- 06 **공영자전거** 출범 8돌, 누비자 얼마나 성장했나
- 08 **자전거문화센터** 환경체험 자전거 투어
- 10 **피스트 동정** 흥석한 500승 달성
- 12 **자전거 마니아** 구마노고도 기행기 · 홍성민
- 14 **두바퀴 인생** 우성식 (15기)선수
- 16 **자전거 장터** 고가자전거 중고장터 개장 운영
- 18 **가보고 싶은 우리 땅** 태백 황지연못
- 20 **고객서비스** 고객서비스현장 개정 선포
- 21 **직원원고** 2016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 22 **창원 돔 소식** 한국야생화전시회 등



『知過必改, 得能莫忘』

— '기본이 바로 선 공단가족' 되어달라 —



존경하는 공단 가족 여러분!
9월1일은 우리 공단이 창립한 지 16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말 이후 이사장 부재중에서도 저와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묵묵히 함께 고생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올해 『안정 속 성장주도 경영』이란 패러다임을 제시

하며, 지난 15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공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수익사업인 경륜과 경정은 물론, 공익사업인 공영자전거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에도 땀흘려왔습니다. 연초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공단에서 먼저 추진해오던 무료입장제도를 경륜 3사와 합동으로 폐지하였고, 3월말에는 지방경륜 최초로 한일경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경륜경정법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된 미환급금을 공단의 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하여 우리의 수익구조를 크게 개

선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공헌사업으로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자전거사업 또한 순수한 우리 기술진의 노력으로 취득한 누비자 운영시스템의 특허취득을 인정받아, 경기도 수원시에서 우리의 누비자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지난 8월 25일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수원 인근 도시에 누비자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 향상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공단의 매출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수년째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우리 경륜을 한층 더 즐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그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성장 국면은 기업 발전단계에서 겪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16년간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함께 교체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모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이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추진문제도 우리 앞에 닥친 현안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성과평가의 기본틀을 바꿀 계획입니다. 부서간, 개인간의 업무평가 지수, 지표 제고를 위한 업무, 인력의 재분배와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조직개편과 함께 지금까지 획일적 평가방법 또한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대다수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립 20주년이란 본격 성장기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초석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6년이 도약과 발전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본격 성장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을 떨쳐 버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젊고 패기있는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마음자세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렸듯이, 우리도 회사의

재도약을 위하여 마음을 한데 모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공단 가족 여러분!

‘희망과 좌절’, ‘위기와 기회’라는 말은 상반된 개념이지만 동시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좌절 속에서 희망이 싹트고, 위기 속에서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좌절이 희망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께 한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경남도 종합감사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의 전언에 의하면 우리 공단의 업무처리 능력이 다른 공기업보다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은 관련 법규나 각종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에 ‘知過必改(지과필개)하고 得能莫忘(득능막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고, 고치게 되었으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오늘 공단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 모두에게 “기본이 바로 선 우리 공단 가족”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공단의 무궁한 발전과 공단가족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하면서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1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金德溶



출범 8돌, 누비자 얼마나 성장했나

지난 10월22일은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출범한지 여덟 돌을 맞는 날이었다. 그동안 누비자는 많은 시행과 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적 공영자전거로 부상했다. 시민에게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출범 당시 자전거 500대에 터미널 20곳으로 출발한 누비자는 이제 창원과 마산, 진해 등 시가지 중심부와 외곽 할 것없이 촘촘히 터미널을 구축하고 매일 공급하는 자전거만도 4,000여대에 육박한다.

더불어 공영자전거를 배송하는 시스템도 독자적으로 구축해 특허까지 취득하는가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모방할 수 없는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 때문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심을 둔 많은 지자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단을 방문, 각종 노하우를 전수받길 희망한다. 실시간 누비자터미널 정보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등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다. 공단은 현재 수원 등 자치단체와 공영자전거 공급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출범 8돌, 이제 누비자는 비단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역할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적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누비자 현황

구 분	2008.10.22	2016.10.22
자전거 댓수	500	3,932
터미널 수	20	265
투입 인원	30	85
연간 대여횟수	13,843	4,281,685
누적 대여횟수	13,843	36,661,158
1일 이용횟수	150	14,465
공급지역	옛 창원	통합 창원시 (창원, 마산, 진해)

환경체험 자전거투어

“자전거타기 이제는 자신 있어요.”

공단이 운영하는 자전거문화교실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자전거타기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26일 환경체험 자전거투어를 떠났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본포수변공원에서 출발한 투어는 밀양시 수산교를 지난 밀양유청마을까지 20여Km를 달린 뒤 막을 내렸다. 30여명의 자전거문화교실 수강생들이 참가한 이날 자전거투어는 그동안 배운 자전거타기 실력을 실전에서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8주간 교육 수료 후 실전 체험하기 위해 실시

이날 자전거투어에는 공단이 무료로 운영하는 자전거문화교실 수강생들로 모두 초보교실을 이수한 후 자신의 실력을 가능해보기 위해 참가했다. 한 수강생은 “8주간에 걸쳐 자전거를 배운 후 이렇게 강변에서 자전거 실력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강사들이 직접 투어를 관리 운영해 안전이 보장돼 정말 좋았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오는 12월 문화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차례 더 환경체험 자전거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매년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자전거교실 무료 수강생을 모집해 범 시민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들로 누비자를 타고 외출하거나 마트 등을 다녀오기 위해 배운다고 했다.





홍석한 500승 기념 피스트 퍼레이드

- 경륜사상 최초 데뷔 16년만에 달성 -



공단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창원 제11경주가 끝난 후 최근 경륜 사상 최초로 500승을 달성한 홍석한(41세·8기)선수에게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홍석한선수는 지난 10월4일 광명경주에서 1위로 골인하며, 경륜사상 최초로 500승을 달성하는 대업을 이룬 바 있다. 그는 이날 창원경주에 출전한 후 공로패와 공로금을 수여받고, 지역 팬들의 열렬한 환호속에 피스트 퍼레이드를 펼쳤다.



지난 2001년 7월 경륜에 입문과 동시에 첫승을 기록한 그는 연평균 31승을 올리는 놀라운 저력을 과시하다 데뷔 16년만인 지난 10월 500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는 특히 500승중 신인 레이스 8경주를 제외하고 492승 모두를 특선급에서 달성, 관계자와 동료선수들의 놀라움을 샀다.

한 때 경륜황제로 불렸던 조호성선수와 쌍벽을 이루며 경륜판을 좌우했던 그는 그랑프리 경륜 3회 대상 기록과 함께 대상경륜에서만 20여회 우승하는 기록의 사나이로 됐다. 그는 현재 불혹이 넘은 나이에도 특선급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 순발력과 막판 순간 스피드는 아직도 타고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본 귀족 순례길을 자전거로 달린다

글·사진 홍성민

도로를 달리는 시끄러운 자동차소리에 잠을 깬다. 오늘은 서둘러야 한다. 아침 밥을 해서 참치캔 1개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서둘러 출발준비를 했다. 하지만 어제 너무 무리를 했는지 미열에 온 몸이 빠근한게 달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지만 자전거가 너무 무겁다. 정말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 걸까하는 후회가 다시 들었다.

이 고생을 왜 하는 걸까 후회도 들어

한참을 달리다보니 신호대기중인 중학생으로 보이는 자전거대열을 만났다.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다. 몇몇 학생이 내 행동을 보고 놀라는 눈치다. 한명도 빠짐없이 헬멧을 쓴 학생들은 신호가 바뀌자 질서 바르게 건널목을 건너 사라졌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시라하마 초입에서 왼쪽으로 311번 국도를 따라 구마노고도에 들어섰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을 넘어야 오늘 목적지 가와유온천(川湯温泉)과 혼구마율이 나올 것이다.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 버스정류장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나카헤치(中辺路)마을에 있는 '구마노고도관(熊野古道館)'을 찾았다. 구마노고도관 안에는 구마노고도 코스를 소개하는 지도와 순례복장을 한 모형, 순례용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기념관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전시물도 빈약했다. 구마노고도관을 지나면서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고, 자전거에서 내리는 일도 잦아졌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에 지쳐

일본은 오토바이 여행족이 많이 보인다. 자전거타고 가는 내내 수도 없이 지나가는 오토바이행렬을 만날 수 있었다. 오르막을 숨을 헐떡이며 오를 때 쌍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짜증도 났다.



자전거 여행가 이윤기씨의 일본 중부 구마노고도 탐방기를 접하고 나 또한 시간을 내어 한번쯤 둘러보고 싶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쉽게 시간이 나지 않지만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와 작년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구마노고도 기행기를 연재한다



해가 질 무렵 내리막이 나왔다. 긴 오르막길 끝에 나온 내리막길은 정말 꿀처럼 달콤했다. 순식간에 목적인 카와유온 천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작은 온천마을이다. 마을 초입의 그릴싸한 호텔에 들러 방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단다. 오늘은 정말 텐트에서 자고 싶지 않았다. 온천욕도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피곤한 몸을 위해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했다. 다른 호텔에 들러 빈방을 문의했지만 빈방은 없었다. 빈방 찾기 힘들거라 한다.

2평도 안되는 작은 목욕탕에 너무나 만족해

낙담하고 어디다 텐트를 쳐야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저씨 한 분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 본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잠시 기다리란다. 잠시 후 아가씨가 와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뭘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해 나를 바꿔준다. 한국인이다. 자전거여행중인데 저렴하게 잘 수 있도록 부탁했다. 덕분에 식사 제공없이 4,500 엔에 방을 하나 구할 수 있었다. 아가씨가 한국라면 2봉지도 선물로 준다. 내가 인복은 있는 놈인가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이들 동안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호텔에 딸린 온천에서 미친 듯이 목욕을 했다. 2평도 안되는 아주 작은 목욕탕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아가씨가 준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늦게 잠이 들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3Km를 달렸다.



홍성민은...

경남대 사회학과 출신이지만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 사이클 관련 직종으로 전환했다. 현재 창원경륜공단 경륜 심판으로 재직 중



좋은 인복 덕분에 경륜선수로 입문..



글·우성식(15기)선수 / 사진·김규태



사람이 타고나는 복중에 하나가 인복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나는 인복이 참 좋은 사람이다. 어찌 보면 운동에 큰 재능이 없는 내가 그 어렵다는 경륜시험에 합격해 경륜선수가 되었다는 건 내 인복이 반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시절 코치를 해주었던 정행모선생님과 김경남선생님 둘 다 현역 경륜 선수였다. 그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많이 방황하던 중2병 시절을 누구보다 현명하게 넘길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경륜선수 코치를 매일 보고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경륜이란 직업을 가져야겠다.'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시절엔 운동은 싫어도 나중에 경륜선수는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두 코치들과 나는 인연이 정말 깊다. 김경남선생님은 지금 내가 속한 동서울팀 훈련을 서포터 해주는 훈련 매니저를 하고 있고, 정행모선생님은 아들인 정해민선수가 22기 경륜 선수로 동서울팀 입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선후배 줄줄이 낙방 소식에 포기할까 생각도

서울체고 입학 후엔 부상의 연속이었다. 손목 골절, 쇄골 골절, 하악 골절, 허리디스크 등 어린 나이에 특하면 어디가 부러져서 수술대에 올랐던 것 같다. 그때는 다들 나처럼 사는가보다 생각해서 잘 견뎠는데 돌이켜보면 스스로 대견한 마음도 든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지켜봤던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죄송할 뿐이다. 그 때도 역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다.

군 제대 후 경륜의 벽이 너무 높아 포기할까도 정말 많이 생각했다. 실력 좋던 주변 선후배들의 낙방소식이 줄줄이 들려왔고, 중장거리 선수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올 리가 없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포기하려할 때 서울체고에서 나를 이끌어주었던 허용봉선생님이 경륜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엄청난 스피드타식 훈련을 통해 중장거리 선수일 때 꿈도 못꾸었던 좋은 기록으로 경륜에 입문하게 되었다.



사실 난 아마추어 시절 잘 타는 선수 축에 들어간 적이 없다. 늘 팀내에서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이었다. 언제나 나보다 조금만 잘 타는 선수가 나오면 주전자리를 내놓고 경기 참가도 못할 것 같은 실력으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다.

가족과 동료에게 마음속 고마움 남아

훈련원시절에도 다른 건 없었다.

훈련원 일기에 “은퇴하기 전에 우수급 머리 한번만 해보고 은퇴하자!” 라는 각오를 쓴 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런 내가 하남팀에 들어가면서 좋은 선배들을 만났고, 동서울팀으로 이적한 후에도 좋은 선배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꿈꿨던 자전거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인복도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까지 내가하는 노력에 힘을 더해준 가족과 동료들이 없었다면 아마 나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마음속엔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마음으로, 지금같이 가족과 동료들이 함께 해주다면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고가자전거 중고장터 개장 운영

9월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고팔고 중개





공단은 지난 9월부터 매달 첫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경륜장내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중고자전거 상설장터'를 개장 운영 중이다.

중고자전거 상설장터는 최근들어 자전거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입문 초기 자전거 구입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동호인 상호간에 자물교환 및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단 창립 16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처음 열린 고가자전거 중고장터는 누비자를 운영하는 공영 자전거사업팀에서 행사를 맡아 오랫동안 행사를 준비, 범시민 자전거타기 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첫 개장 때 경륜선수 사랑나눔 베품시장도 운영

이날 첫 개장 때는 특히 8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원·김해지역 경륜선수회가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사이클 관련 용품 등을 출시하고 팬사인회 등도 동시에 개최했다.

경륜선수회는 이날 행사로 거둔 수익 중 22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조성, 지난 9월 7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공단은 자전거 중고장터가 예상외의 호응을 얻자 앞으로 매달 첫째주 토요일 상설장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낙동강 발원지 강원도

태백 황지연못



글·김종훈 / 사진·김규태



영남의 젓줄 낙동강. 본류의 길이만도 525km가 넘고, 유역면적은 23,860km²에 달한다. 남한에서 제일 긴 이 강은 어림잡아 영남지역 1천만 인구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그야말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최고의 존재이다. 그런 만큼 발원지에 대한 주장도 너털샘, 용소(龍沼), 용정(龍井) 등 여러 곳이지만, 고문헌(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등)과 태백 현지 사람들은 황지연못만을 낙동강 발원지로 인정한다.

생각과 달리 황지연못은 태백 시가지 중심부에 있었다. 연못 주변은 조그만 공원으로 조성돼 있었고, 앞에는 해발 680m라는 표시가 있었다. 연못가에는 황지연못 ‘낙동강 천삼백리 예부터 시작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이 외로이 서 있었다. 연못은 상지, 중지, 하지 등 3곳으로 나눠져 실 새 없이 물을 내뿜었다.

사면이 상가로 둘러싸인 연못에서 하루 5,000t 용출

해질 녘 호수는 빛을 받아 반사되고 있었지만 물만은 투명하다 못해 차라리 어두운 빛깔을 띠고 있었다. 사면이 상가 건물로 뒤덮여져 연못 자체는 아담한 울타리에 둘러 쌓여 있는 것만 같았다. 영남의 젓줄이라 그런지 해가 질 때인데도 간혹 관광객들이 연못을 찾아 해설가의 설명을 듣느라 여념이 없었다.

주변에는 연못에 얽힌 황부자이야기를 전하는 동상들이 줄줄이 늘어서 연못을 호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 용출되어 나오는 물은 하루에 5,000t 가량이란다. 이 물이 태백 시가지를 거쳐 황지천으로 흘러 영남에 와서 여러 강물과 합쳐져 낙동강이 된다. 재미있는 것은 남한



에서 가장 길이가 긴 낙동강과 한강 발원지가 모두 태백에 있다는 점이다. 황지연못에서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까지는 불과 20여분 거리라고.

수질 잘 보존되고 내년쯤 물길 복원공사도 예정

태백시에서도 황지연못의 관광성과 중요성을 깨달아 최근에는 연못 주변을 재정비하기 위해 주변 상가 등을 매입하고 있었다. 또한 내년쯤부터는 시가지 중심부로 물줄기를 잇는 황지연못 옛 물길도 복원할 예정이란다.

영남의 젓줄로 천삼백리를 흐르는 낙동강의 시작점 황지연못. 승용차로 4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그곳에는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조그만 연못 3곳에서 실 새 없이 물을 뿜고 있었다. 그 물이 어떻게 그 기나긴 거리를 흘러내릴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연못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연못치고는 수질이 아주 잘 보존되고 수량도 풍부해 안심이었다.



고객서비스헌장 개정 선포

고객서비스 헌장

창원경륜공단은 경륜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방재정확충,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정부3.0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 사계절 쾌적한 환경, 복합 건전레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나. 과학적 분석, 신속·정확한 판정으로 투명한 경륜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스릴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운영으로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문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임직원 일동



- 창립 16주년 맞아 고객최우선주의 천명

공단은 창립 제16주년에 즈음해 지난 8월31일 오전 공단 대강당에서 고객서비스헌장 개정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개정 선포된 고객서비스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 실천 차원에서 기존의 고객서비스헌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 공표한 것이다.

창립 16주년 기념식에 이어 열린 선포식에는 전직원들이 선서를 통해 경륜사업의 건전화와 고객 최우선주의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이어 2층 종합안내실 앞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벽면에 고객서비스헌장을 게시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2016 노사한마음등반대회 힐링의 시간... 이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길



글 · 임현주 (총무회계파트)

10월 25일 9시, 노사가 한마음으로 합천 소리길 등반가는 날.

평소 사무실에서만 보던 동료들과 함께 소리길을 걷는다는 생각에 기쁨과 설렘이 무지 컸다. 입사하고 직원들과 함께 가는 첫 등반이라 전날 밤잠을 설쳤지만 은근히 미소가 번지는 아침이었다.

합천 해인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예고됐던 비가 한방울씩 내렸다. 비로 인해 약간 날씨가 춥긴 했지만 주변 산을 빨갛게 물들인 단풍과 어우러진 안개는 더욱 운치있는 풍경을 자아냈다. 해인사 경내를 한바퀴 돌고 비빔밥과 파전으로 꿀맛 같은 점심을 먹었다. 곧이어 소리길 등반이 시작되었고, 때 마침 비가 그쳐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나 싶은 생각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천천히 소리길을 걸으며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하며, 좋은 풍경이 나오면 사진도 찍으라 풍경도 구경하라 나를 바쁜 속에서 소리길을 걸었다. 둘레길이라고 해서 맛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생각보다 조금 힘든 등반길이 시작되었다.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 한순간에 사라져

오랜만에 하는 등반이라 땀도 나고 다리도 후들거렸다. '평소에 운동을 좀 할걸.' 하고 후회도 했지만, 맑은 물줄기

를 따라 홍류동계곡을 걸으니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상 그 자체였다. 계곡물이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물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일 정도였고, 멋진 폭포는 모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너도나도 멋진 광경을 눈에 담기 바빴다.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에 요 근래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힘들었던 산행 때문이었는지 저녁식사자리가 더욱 뜻 깊었다. 항상 사무실에서 보던 직원들의 얼굴이 달라보였고, 밥맛은 더욱 좋았다. 직원들의 화기에애한 분위기는 경품추첨행사로 최고조에 달했다. 당첨자가 나올 때마다 여기 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혹시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하여 호명될 때마다 조금씩 긴장도 했는데, 끝까지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하지만 뭐 어때랴. 경품 당첨보다 더 재미난 하루를 선물 받아 내 기분은 날아갈 듯 가벼운데.

오늘 하루 등반으로 직원들 모두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주입된 것 같았다. 자연이 주는 힐링의 시간이 신선한 동력이 되어 '내일'이라는 희망이 새로 태어나겠지?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라보았다.





창원 돔 소식

제4회 대한민국 야생화예술문화축제 개최



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덕웅)과 사)한국야생화협회(회장 김봉열)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야생화 예술문화축제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단 음악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창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야생화협회 소속 동호회원들이 300여점의 작품을 출품해 사흘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공단은 음악공원 일대에서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야생화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박중독예방 캠페인

공단은 지난 9월 24일 오후 객장 2층에서 입장객을 대상으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공동으로 도박중독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7월 14일 김해지점 객장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중독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고객들이 도박중독 자가진단 척도검사를 실시한 후 자신의 몰입정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문화센터 토털공예전

공단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 객장 2층 상설 전시장에서 김해 장유 우리문화센터의 토털공예전을 개최했다. 이 공예전에는 우리문화센터 강사들이 직접 제작한 캘리그래피, 팽목을 이용한 수목화, 정반공예품 등 다양한 공예작품 30여점이 전시됐다. 지금까지 상설전시장에서는 자전거사진전, 동양화전, 캘리그래피전 등 다채로운 전시회가 열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 임직원 교육

공단은 9월 21일 오후 대강당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전교육을 받은 공단 감사홍보담당관이 영상물 상영과 함께 알기 쉬운 사례위주로 개최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년 연속 청렴도 평가 1위 기관으로 선정돼 2015년부터 평가제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바퀴 사랑의 봉사활동

공단 고객편의시설 종사원들로 구성된 두바퀴 사랑의 봉사단은 지난 10월 19일 하루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대한적십자사 마음의 집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경륜장 내 고객식당과 판매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등 고객편의시설 종사원 15명이 참가해 급식봉사, 설거지, 잔반처리 등을 도왔으며, 이에 앞서 마음의 집에 모듬설기떡 240개 가량을 제공했다.



김해점,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

공단 김해지점은 지난 10월 23일 하루동안 김해시 외동 한국 2차 아파트 앞에서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벌였다. 대한적십자사 김해재난대응봉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에는 공단 직원들과 적십자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가해 100여대의 자전거를 정비했다. 김해지점은 올해 상, 하반기 각각 3회에 걸쳐 모두 6회의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김해지역에서 펼쳤다.



일일명예심판제 시행

공단은 지난 10월 29일 경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일명예심판제를 실시했다. 이날 명예심판에는 사전에 신청을 접수한 고객대표, 선수 등 8명이 참가했다. 명예심판들은 전산과 방송, 선수동 등 주요시설을 먼저 둘러본 후, 종합 심판실에서 경주 판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과정을 지켜봤다.



“세계일류 공기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 미국 AmWest사와 **경륜 콘텐츠 수출 MOU체결** (2015. 5. 20)
- ▶ 지방 최초 **한일경륜전 개최** (2016. 3. 27~29)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위** (2015년 평가 제외)
-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균형집행 우수기관** (2015년)



경고 :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